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 축일

기도서 233면 (B해)

제1독서: 집 회 3, 3-7. 14-17a

제2독서: 골 로 3, 12-21

복 음: 루 가 2, 22-40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또 하나의 작은 성가정

경 규 봉 신부



예수,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나자렛 생활은 소박하고도 평범한 생활이었다. 남편 요셉은 목수 일을 하면서 툭툭이 생활비를 벌었고, 마리아는 남편과 예수의 시중을 들면서 틈틈이 옷을 지었고, 예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냈다. 그들은 남보다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으며, 남의 동정을 살만큼 가난하지도 않았다. 자식이 많아서 부러움을 받지도 않았고,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작고도 평범한 가정이었다.

이처럼 평범한 가정이 성가정으로 불리우고, 모든 믿는 이들의 모범이 된 까닭은 그들이 다른 가정보다 특출하거나 뛰어난 점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그들의 가정은 육으로나 피로서 맺어진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맺어진 가정이었다.

요셉은 마리아와 같이 살기 전에 이미 마리아의 배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보았다. 요셉은 그리스도에 있을 모시기에 부족함을 느꼈고, 때문에 마리아와 가정을 꾸미기를 포기하려 했었다(마태 1, 19).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을 꾸미고 예수를 양자로 받아들였다. 마리아 역시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오직 주님의 종으로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임할 것을 아들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주위로부터 어떠한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참아 견딜 작오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들에게도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망과 정(情)은 항상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 요한과 이 누갈다가 겪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미리 체험했고, 술한 밤을 고뇌로 지새우기도 했었을 것이다. 삶의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택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뜻을 택하느냐?"하고 싸워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깊었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안의 모든 인간적인 약점들을 승화시켰다. 이처럼 그리스도 중심적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인간적인 부족함을 승화시켰기 때문에 성가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비록 보잘 것 없고 작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더 이상 보잘 것 없는 가정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이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가정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가정이요, 또 하나의 작은 성가정이다. (해성학교 종교강)



아니 되웁니다.

-1984년을 보내며

또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우리는 1년 전에도 지난해를 반성하며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나름대로의 희망을 갖기도 했었다. 이러기를 벌써 몇 차례나 반복했었던가? 그때마다 흐뭇함과 아쉬움의 무게는 어떠했었던가? 산을 넘어도 또 산이고, 결국은 죽음의 고지에 한 발짝씩 다가간 것 밖에는 남은 것이 없나보다. 그래도 우리는 또 다시 한 해를 되돌아 보며 새로운 소망을 꿈꾸어야 한다.

올해에는 유별나게도 대학생들의 목소리와 몸짓이 컸다. 급기야는 시험도 거부하고 정당의 당사를 찾아 소리를 질러댔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거부운동의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는 전한다. 어찌서 이들은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는가? 왜 이들의 소리는 대화로 승화되지 못하고 외면만 당하는가? 어쩌다가 학생들은 그들 본연의 일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분명히 여기에는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지난 70년대에는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양심세력들을 "일부 몰지각한 부류"로 몰아부쳤다. 그러나 80년대의 새정권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나섰다. 이 역사가 보여주는 바는 실로 흥미할 가치가 크다. 나라가 어려워수록 "아니 되웁니다"하는 세력이 많아야 한다고 역사는 가르친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아니 된다"고 말하는가? 너 나 할 것 없이 그저 침묵으로 현실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문제다.

200주년을 맞은 한국 천주교회는 「이 땅에 빛을」 밝히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아직도 밝은 어둠과 비바람마저 있다. 우리 모두 어떻게 살아와서 이런가? 우리 모두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하겠다.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예언자적 사명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하겠다.

숲 정 이 산책

너무 너무 수고했어

축
금마성담축성식
1984. 12. 23.

□1985년 “증거의 해”

주교단 사목교서(요약)

1. 103위 시성은 우리의 새로운 과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한국 천주교회의 200주년을 기념하며 103위 한국 순교 복자들의 시성, 교황 방한 등 크나큰 행사를 무사히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200주년이 끝난 오늘도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신앙의 길을 개척해야 할 때입니다. 1984년이 과거 200년간의 한국 교회의 역사를 총정리하고 순교 선열의 업적을 세상에 드러내는 해였다면, 이제부터는 그분들의 모범을 우리 생활속에 구체적으로 사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2. 우리의 자각

우리가 이어받은 신앙의 유산은 하느님께서 먼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해 주셨다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천세에서 이를 증거해 왔고 200년 전부터 우리의 순교 선열들도 이를 증거하기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증거의 역사를 계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특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사랑을 볼 때 인간은 모든 인종, 문화, 관습, 계층, 지위, 능력, 가문에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승하여 증거하는 제자들로서 오늘날의 문화, 사회, 제도, 국가 안에서 이 인간의 품위와 존엄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 모든 교우들에게

이 땅의 순교 선열들은 복음적인 삶을 구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순교 선열들의 모범을 오늘의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 이어받는 것이 그분들의 후예인 우리 모두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목표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첫째로 모든 개인주의적 신앙자세를 탈피하고 이웃 형제와의 유대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교우는 교회가 성직자나 소수 지도자들의 것이 아닌 바로 나의 교회요 우리의 교회라는 인식하에 누구의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기 보다는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열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가정 교회를 확립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가정을 통해 신앙을 실습하고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의 조화를 배워 나가도록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3면에 계속)

인간의 말보다 하느님의 귀를...

정 바 오 로(영목)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리고 자신을 P. R하는 시대로 무섭게 변모해 버렸다. 소위 지식, 체면, 명예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분별없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맹이 없는 아름다운 말들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데 열사(熱死) 없이 떠들기만 하여 상대방의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자아(自我)의 주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남의 말만 늘어놓는 시대라고나 할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귀까지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이며, 우리가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도록 하게 하시려는 배려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많은 신자들, 특히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귀를 찾고 있다. 그들은 이 귀를 그리스도 신자들 안에서 찾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듣는 대신에 말만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하나의 예술이고 기술이며 훈련이다. 자기의 자아(自我)를 죽이고 침묵을 지키면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자애로운 일이며, 동시에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다.

듣는 것이 왜 자애로운 일이란 말인가? 우리가 하는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자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듣는 것이 왜 어려운 일이란 말인가? 듣는 것은 자기 회생을 요구한다. 우리 자신의 얘기를 들려 주고픈 욕구를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의 관계를 형성해 주고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절음이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말씀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귀를 가지고 들을 줄 알아야 하겠다.

(임실 사무장)

♣성요셉 근로자의 집 축성식

교구에서는 노동사목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의 인식적인 「성요셉 근로자의 집」을 완공하고 축성식을 갖는다.

일시 : 12월 30일 오전 10시30분

장소 : 이리 창인동성당 내 성요셉 근로자의 집 (52-6949)

행사 : 축성미사, 축성식, 나눔의 잔치

신비의 식품

성 베네딕도 왜관 대수도원 제조

靈 芝 영 지

◎영지 : 혈압, 당뇨, 관절, 위장
불치의 성인병에 특효

전북 이리시 송학동 238~67 ☎ 3-3162

李 야고버(東出) 朴 안젤라(月順)

이리 최윤경 미용실·미용학원

학원생 주·야간 수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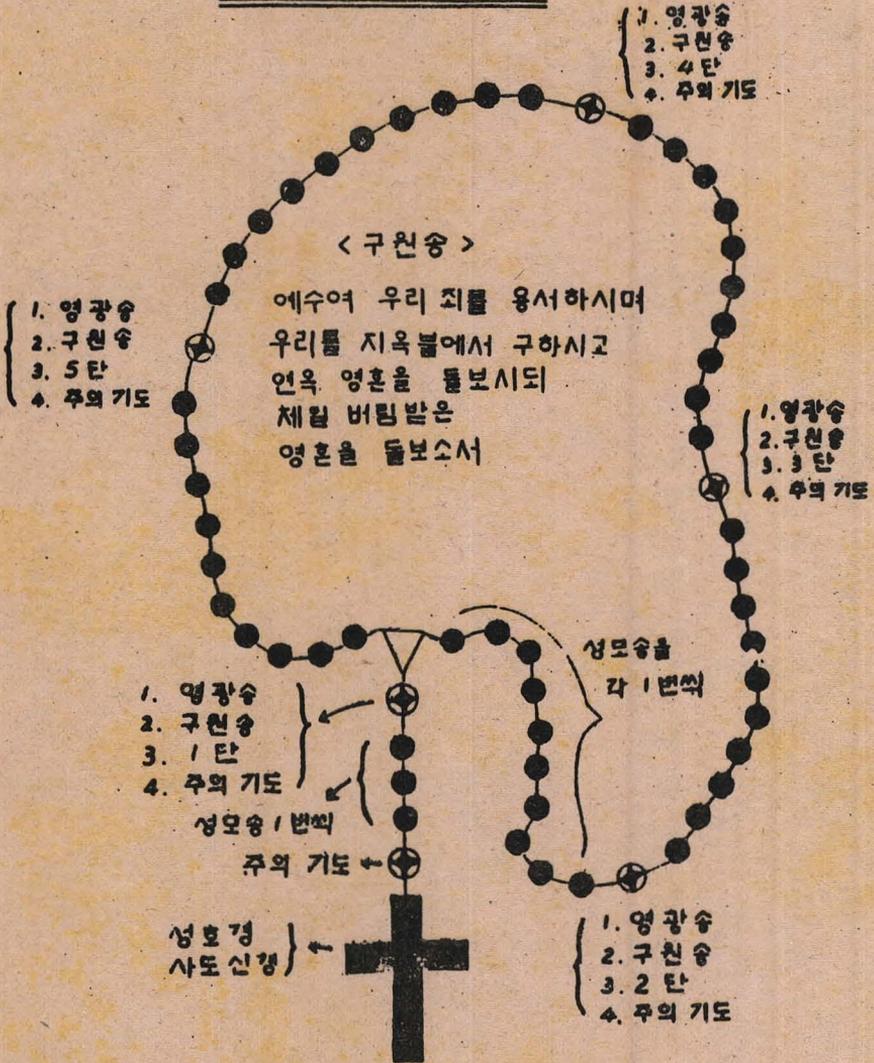
신부화장, 드레스, 페팩트 제공

미국, 불란서를 비롯 구라파 여러나라에서 교육을 마치고 귀국한

원장 최윤경(유리안나) 직접 지도합니다.

☎ 이리 2-8653 3-2496

목주의 기도 (로사리오)



1. 85년도 주계 관광성사 일정

(시간: 14:00~17:00, 19:00~21:00)

84년도 형제가족임 : 12월 18일 오후 7시~9시 (화요일)

12월 18일 (화) : 금암 1, 2구, 진북 1동 (14:00~17:00)

12월 19일 (수) : 서신 1, 2, 3, 4, 5구역, 개은골

12월 20일 (목) : 진북 2동 1, 2, 3, 4, 5구역, 채평동

12월 21일 (금) : 진북 2동 6, 7, 8, 9, 10구역, 동양아파트

12월 22일 (토) : 중, 고, 대학생

12월 23일 (일) : 국민학생 12월 24일 (월) : 기타 (20:30~23:00)

자정미사: 12월 24일 밤 12:00

2. 상칸미사시간

상칸미사: 12월 25일 10:00

주일학교 15:00

저녁미사 18:00

□오늘은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성 가 정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터전으로 하나의 세포라고 한다면, 한 가정의 빛나는 모범과 덕행이 점점 번져 그 사회를 거룩하게 성화할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성가정에 대한 관심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여러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성가정은 인류사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발전하도록 제시한 모범이 되는 가장 훌륭한 가정이다. 요셉과 마리아 두 성인 성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신 이 가정은 하느님께서 흠족해 하시는 삶의 분위기였으므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가정의 모범인 틀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성가정에 대한 성서구절 : 마태오 1~2장, 루카 1~3장
- 가정을 위한 기도 : 기도서 90 쪽

(2면에서 계속)

4. 성직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겨레에게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의 현존을 드러내기 위해 특별히 간택된 이들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하는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특히 가장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 자신을 내던져 사랑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안에 깊이 새기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봉사과 활동은 기도 안에서 출발하여야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5. 수도자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태의 수도생활을 하여도 그 수도생활의 목적은 오로지 가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몸으로 증거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당신의 것을 다 내어 놓으시며 종의 신분을 취하시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고 종의 모습이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어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행동과 생활로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수도자들에게 맡겨진 최고의 사명이요 영예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여러분의 이러한 증거를 어느 시대보다도 더 각별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밝힙시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이 땅은 그렇게 밝지만은 못합니다. 정치의 영역에 드리운 불의의 어둠, 경제의 영역에 드리운 불황의 어두움, 교육의 영역에 드리운 불신의 어두움, 이런 어둠들이 우리에게 안타깝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증거는 스승이 제자에게 주듯 일방적인 교화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겨레와 함께 나누고 화해하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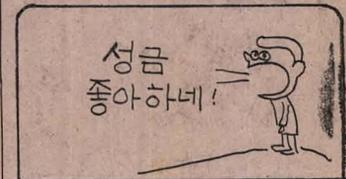
교황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이 '삶의 증거, 회개를 통한 화해, 그리고 사랑의 나눔'이라는 세 큰 별을 띄워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찬미예수.

1984년 12월 2일 대림 첫 주일에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

요셉이 (595) 김병오



일신 기업 석재

★건축석재 가공 및 시공
★상석·석관
(대리석, 기타석재)
대표 김중의(야고버)
(함열천주교회 사도회장)
전화 공장 (0653) 5000
자택 (0653) 0049

특수자연시 컴퓨터로
마음에 원하시는 안경으로
눈을 밝고 보호해 드립니다

보안당 렌타

진주구역전오거리 3-3032
주. 윤베드로

群山 임정골한방의원
진료과목 : 침구과, 부인과, 내과, 외과 (뼈)

원장 임 스테파노 (의성)
특설 : 물리치료실
척추교정 및 디스크상담
☎ 2-2403 (국도극장 뒤)

주소 : 김약국 경림사+조화당+연전
선암고개 국도극장 임정골한방의원

마기환 안과의원
부설 : 새한콘택트렌즈

원장 안과전문 마기환
한 남 희(비리시타)
TEL. 75-2203
(시집가는날, 태극당건너편, 불새대방 2층)

동 태극당 서 오거리
←전동성당 →
종년체과로
마기환안과

(4) 순 정 이



1. 신년 교례회 : 1월 1일 오전 11시, 가톨릭 센터, 대상-제위 신부님, 사도회장, 교회기관장, 제단체 대표
2. 꾸리아 단장 회의 : 3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각 꾸리아 단장
3. 마리아 푸른군대 피정 : 3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노송동 성당, 준비-회비 1천원, 도시락
4. 제20차 여인양들의 모후 소년 꾸리아 : 6일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사제관 2층, 대상-수류·원평·정주·상관·남원·신태인·전주지구 pr간부들(※ 삼왕뽕기 행사 있음)
5. 제5차 성실하신 동년녀 소년 꾸리아 : 6일 오후 2시, 장소-이리 창인동성당 L.M.회의실, 대상-군산·매야·함열·용안·황등·김제·이리지구 pr간부들
6. 남성·여성 꾸르실로 : 男 1월 17일~20일, 女 1월 26일~29일, 신청마감-1월 10일 ※ 본당신부님을 통해 신청하세요.

※ 연휴 관계로 공지사항은 신년 교례회 때에 가져 오셔야 함. □ 전화번호 안내 : 김제-㉠국 추가

제 1 지구 각 분당 소식①

(중앙)

전화 ㉠1711~3 주임 신부 문정림
보좌 신부 나훈성
사도 회장 김인철

1. 재야 자정미사 : 31일 밤12시, 금암동 성당에서
 2. 감사 : 빈첵시오의 집, 불우한이웃을 위해(30만원)
 3. 병자봉성체 : 1월 8일
 4. 성탄꽃 봉헌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 사도회 : 공식미사 후
 6. 꾸리아 : 13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 1,361,380원 교무금 : 5,784,300원
감사헌금 : 최혜레나(1만원)

(노송동)

신부 ㉠0969 주임 신부 김용태
수·사 ㉠7032 보좌 신부 이성우
사도 회장 이홍재

1. 대의원 총회 : 오늘 공식미사 후 각 구역장님, 사도회입원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2. 송년미사 : 31일 저녁 10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 신축기금 신입합시다 : 100만원-김문곤, 20만원-이운우, 15만원-이미자, 10만원-정복순·유복자·김화심, 5만원-박복용, 3만원-곽예순, 2만원-박일남. 이인상·조순자·박복순, 소계-1,810,000원
4. 사도회 송년회 : 31일 송년미사 후, 각 단체의 임원님, 구역장님, 봉사자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5. 신년도 교무금 신입합시다 : 아직 신년도 교무금 수입을 못하신 분은 1월 15일까지 수입 완료합시다
6. 예수성심회 월례회 : 8일 어머니미사 후
7. 애령사업 특별헌금 : 10만원-조희형 자녀들, 감사헌금 : 1만원-유정자·이막달레나
8. 교무금 미수된 세대는 속히 완납합시다

(덕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김요안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축! 성탄영세(85명) : 축하합니다
2. 성탄 경축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주의 축복 받습니다
3. 청년연합회 정기총회 : 오늘 오전 10시(유치원) 전복회 정기총회-오늘 공식미사 후
4. 사도회 시무식(삼일위원회) : 1월 5일 오후 4시
5. L.M 연축친목회 : 1월 6일 12시~4시
6. 새 예비자교리 : 1월 13일부터 다시 개강합니다. 많은 인도와 신청 접수 바랍니다
7. 금주 분당청소 : 사도회(5일 오후 3시)
8. 금주전례 복사 : 전례분과위원회, 세해부러는 각단체 반별로 맡아 봉사하겠습니다, 모두 미사전례에 관심 갖고 참여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618,470원 교무금 : 1,722,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영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성원

1. 첫철례 7 : 1월 5일 저녁 7시
 2. 복자부녀회 : 1월 5일 오전 10시
 3. 새영세자 모임 : 30일 공식미사 후, 강당 빠짐없이 모여주세요
 4. 주일학교 방학 : 오늘부터
 5. 85년도 교무금 15% 인상 : 생활이 좋아져서 적으신 분과 많으신 분은 사도회에 문의바람(십일조정신)
 6. 판공성사 못보신 분 : 빠른 시일내 성사보세요
 7. 금주청소 : 월-황금의 궁전, 토-이방에 빛이신모후 다음주 청소 : 월-사도의 모후, 토-자비의 모후
 8. 금주전례 : 해설-최정순, 독서-㉠조영호 ㉠장영하 차주전례 : 해설-김인식, 독서-㉠정동민 ㉠정운주
- 지난주 봉헌금 : 169,700원 교무금 : 1,020,205원

(서학동)

신부 ㉠8307 주임 신부 김동준
수녀 ㉠2276 보좌 신부 김낙균

1. 모임 : 사도회 월례회-1월 4일 저녁 8시, 자모회-1월 8일 오전 10시30분
 2. 1월 1일 신정 평화의 날 미사 : 오전 10시
 3. 본당의 날 행사 : 오늘 오전 11시30분, 경노잔치-요나회 주최
 4. 교무금 미납하신 분 속히 완납바랍니다
 5. 판공성사 못보신 분 : 매일 미사 전·후에 성사주오내 빠짐없이 성사보시기 바랍니다
 6. 차주전례 : 해설-김광수·교정수, 독서-㉠이정민 ㉠김나섭, 기도-천사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 348,680원 교무금 : 2,436,500원
성탄헌금 : 721,085원

(순정이)

전화 ㉠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9567 사도 회장 김수겸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부녀회 : 1월 5일 10시, 지참물-합본성서·성가책(예언서 연구도 겸함)
 3. 레지오 연축친목회 : 1월 13일, 강당
 4. 판공성사 못보신 분 : 매 미사전에 보십시오
 5. 85년도 교무금 미신입자는 신입 바랍니다
 6. 은혼기 성금 : 감기 예방으로 설치하였습니다.....
 7. 금주전례 : 해설-홍성조, 독서기도-이규철·유희자 차주전례 : 해설-이귀례, 독서기도-강원모·송숙자
- 지난주 봉헌금 : 252,270원 교무금 : 824,000원

(전동)

신부 ㉠6208 주임 신부 김치삼
전화 사무 ㉠3222 보좌 신부 정양현
수녀 ㉠8347 사도 회장 김병오

1. 송년미사 : 31일 오후 11시30분, 아침미사만 없음
 2. 글라라 형제회 : 오늘 오후 1시30분
 3. 유아세례 : 다음주 학생미사 후
 4. 레지오 연축친목회 : 1월 5일 저녁미사 후(적속 및 성마리아 꾸리아), 레지오 간부 연수회-1월 5일 오후 2시~5시
 5. 예비자교리 : 85년 1월 6일부터
 6. 200주년 기념사액 헌금 : 20만원-박관향, 10만원-김순이·차동복·백성녀·유남순, 5만원-박정순·한상호·김영배·이상현·김복성·이대원·정갑택, 3만원-범희갑·익명·김필남·고정순·이순자·김홍기·김규영·이순배·이유자, 2만원-이남재·최복순·박영수·박성수·김기모, 1만원-진소관·박상규·송은순·최덕남·박재홍·탁봉애·최남순·김남희·김정수·이영순·김광수·은경남·이순기, 강준석-100만원, 김탁희-50만원, 황호자-30만원, 고수창-20만원, 강복순-5만원, 고은희·황제진·손희부·강안자-각 3만원, 이선경·김공녀·은순상·김일영-각 1만원, 양일순-1만5천원
- 지난주 봉헌금 : 873,090원 교무금 : 3,756,000원
예수성탄금 : 1,687,110원

(호자동)

신부 75-3841 주임 신부 박종신
수녀 2-4804 사도 회장 이교성
사무 2-0915

1. 85년도 분당예산 : 5,300만원, 많은 관심 바람
 2. 사목회의 :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감사합니다 : 성모회에서 스폰지방석 24개
 4. 축하합니다 : 성탄 성인 영세자-47명
 5. 유아세례 : 오늘 10시
 6. 축! 결혼 : 1월 6일 낮 12시, 호자동성당 신랑-정희창, 신부-한 선(마리아)
- 지난주 봉헌금 : 444,270원 교무금 : 1,931,290원